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주님의 심판

심판 주일(금육 주일)

성 필레몬 사도, 성 필로테이 수녀순교자

제2조 / 조과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당 찬양송

· 금육 주일 시기송 / 220. B 271

· 사도경 : 고린토 전 8,8-9,2 / 봉독서 432

· 복음경 : 루가 25,31-46 / 136. B 9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2년 전 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 어머니와 나는 그녀의 네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내게 아이들의 이름을 말해주었고,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하랄람보스(당시 12세)를 주의하십시오. 잘못하면 그 아이에게 폭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무슨 말씀이세요? 하랄람보스는 가장 착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막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 당신은 하랄람보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이에

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믿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며 화를 내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엿그제 회개하면서 다시 나를 찾아와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 신부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세상을 기준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빛을 비추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랄람보스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거칠게 돌변했고 우리를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음식 탐욕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그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고기를 다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고린토 전 8,13)

오늘부터 정교회는 사순절 전 주일로서 금육 주일로 정하고 육류를 삼가고 완전 금식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마치 아이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기 전에 모유를 끊으려고 조금씩 절제하듯이 정교회도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완전 금식을 위해 서서히 육류부터 끊는 것이다.

탐욕은 정교회에서는 큰 죄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사람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오직 먹고 마시는 데 정신이 나가서 배를 채우는 일만 즐기는 것은 욕심이기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음식을 탐하는 사람에게서 경제적, 육체적, 영적의 부정적 모습을 볼 수 있다.

먼저, 음식을 탐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외식을 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출은 늘어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게 되지만 습관이 들어버리면 그 버릇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또한 지금은 마스크가 오히려 음식 탐욕을 더 부추기고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탐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인가 보다 하고 앓다 튀 따라 가려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담을 주고 신앙 생활을 힘들게 만들 뿐일 것이다.

두 번째로 음식을 탐하므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도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 중 특히 육류를 즐겨 먹는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건강을 잃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작은 질병에서부터 중대한 질병에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음식을 탐하므로

로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그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금식을 권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많은 질병에 걸린 환자들에게도 특히 육류를 제외하고 채식 위주로 식사하기를 권하고 있다. 한국도 이미 입맛이 서구화가 되어 육류 위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로 인해 소아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일찍이 성인병을 앓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해를 끼쳐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그에 몰두하게 되어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된다. 아토스 성산의 수도자들은 음식은 육신이 활동하는데 영양을 공급하는 에너지 수단으로 먹는 것으로서 그 이상을 탐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욕심이므로 최대한 절제를 하며 수도 생활을 한다. 그래서 식탁에서도 오랫동안 음식을 즐기고 배를 불리는 것을 절대적으로 삼간다. 우리도 어렸을 때 밥 한 톨을 아끼고, 한 끼 식사를 검소하게 먹는 것도 감사할 때가 있었다. 도가 넘치게 배를 불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겼다. 왜냐하면 음식을 탐하는 것만큼 정신이 게을러지고 나태함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성서에서도 음식을 탐하는 것은 죄라고 가르치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정신을 맑게 하려고 금식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기념하고 그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절제하여 맑게 하고 맛을 준비를 해야 한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무거운 물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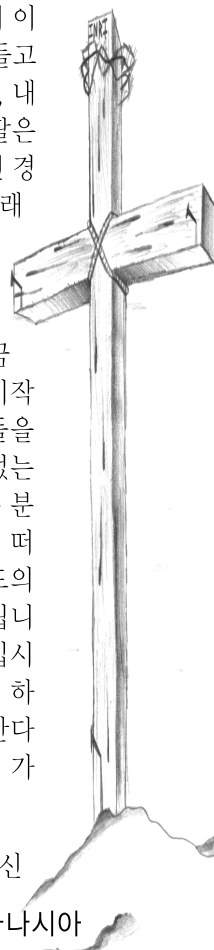
아주 최근에 한 원로가 자신을 찾아온 한 무리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그분이 물 잔 하나를 들었고, 모두들 그가 평범한 질문, 곧 “이 물 잔에 물이 반쯤 비었나요? 아니면 반쯤 차 있나요?”하는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로께서는 웃음을 지으면서, “이 물 잔이 얼마나 무거우리라고 생각하나요?”하고 물었다. 대답은 250그램에서 600그램까지 다양하게 나왔다. 그러자 원로께서는 말씀하셨다. “사실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이 잔을 들고 있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딱 일 분만 들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한 시간을 들고 있다면, 내 팔이 조금 아플 것입니다. 만일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내 팔은 무감각해지고 부분적으로는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물 잔의 무게는 변하지 않으며, 다만 내가 물 잔을 오래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어서 원로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삶의 걱정과 압박감, 긴장 등도 바로 물 잔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잠시만 생각한다면, 나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만일 조금 더 오래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루 종일이나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이성 마비되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분명히 스트레스와 두려움 따위를 하루 중에 가능한 대로 일찍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하며, 밤이 늦도록 붙들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리십시오!” “또한 만일에 여러분의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과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나쁜 생각으로 발전한다면 그때는 영적인 아버지를 찾아가서 고백성사를 할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고백성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얼른 당신의 물 잔을 내려놓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참회의 만과** ▷ 다음 주일은 대사순절 직전 주일로 ‘용서의 주일’이라 불립니다. 성찬예배 후 ‘참회와 용서의 만과’가 거행됩니다. 자세한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모든 참여하셔서, 사랑과 용서로 대사순절을 시작하여, 많은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합시다.
- **이번 주간은 육류를 금합니다.** ▷ 이번 주간은 대사순절에 들어가기 전 주간으로 육류는 금하고, 생선과 달걀 및 유제품은 허용됩니다.
- **복사 모임** ▷ 오는 2월 23일(목)에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에서 전국 복사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와 함께 모든 지역 성당의 복사들이 함께 친교를 나누고 유익한 배움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각 지역 성당의 모든 복사들은 빠짐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주일학교 진급식** ▷ 2월 26일 주일 성찬예배 후 주일학교 진급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함께 참석하셔서 새로운 학년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성모 안식 성당

- **겨울 수련회** ▷ 지난 2월 12(일)~13(월)에 여수에서 주일학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고백성사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서는 교사, 학생, 자원 봉사자 등 24명이 참여하여 예배와 교육, 다양한 체험 활동과 견학을 통해 의미 있는 배움과 즐거운 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수련회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도록 은총을 베푸신 주님과 성모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수고하신 교사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